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2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3월 3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범죄자 비호하는
천안법원!

유시영 얼굴 좀 봅시다.

3월 27일 천안법원 앞은 범죄자 유시영의 얼굴을 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성지회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연대온 동지들도 법정에 서게된 범법자 유시영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천안법원 앞에서는 새까맣게 늘어선 경찰들만 볼 수 있었다. 재판 방청을 위해 이동하던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조끼를 벗으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경찰만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은 범법자도 아주 철저히 보호해주는 인권경찰인가 보다.

우린 자신있다!

대한민국에서 재정신청이 수용될 확률은 1%가 안된다.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74,249건의 재정신청 중 719건만이 받아들여졌다. 0.96%이다. 그런데 유성지회는 투쟁을 통해서 이 바늘구멍 같은 재정신청 수용을 만들어냈다. 실낱같은 희망이었지만 법원도 외면할 수 없을만큼 강력한 투쟁이 이런 성과를 만들었던 것이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지금까지는 노조파괴

범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고 진짜 처벌을 만드는 싸움은 지금부터다. 이제 막 링에 오른 것이다. 지금부터 제대로 싸워야 KO시킬 수 있다.

그래도 자신감이 넘친다.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은 "유성지회는 자신있다. 범죄자들 확실히 처벌시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면 허풍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노조파괴 투쟁의 종지부를 찍자!

민주노조는 그동안 노조파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도 보쉬전장, 콘티넨탈지회 동지들은 현장탄압과 임금차별 등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이제 노조파괴범은 처벌된다는 확실한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유성 어용노조 설립취소 소송을 통해서 어용노조는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2011년부터 5년간 자본들은 노조파괴로 쏙쏙한 재미를 봤다. 5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할 때가 왔다.

대법원은 정치하는 곳?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원 중 최고 상위 기관이다.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수상하다. 2013년 12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릴 때부터 이상했다. 법이라는 허울좋은 외투를 입고 사실은 자본 편향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런 대법원이 금속노조를 근간부터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경주의 발레오만도지회는 발레오 어용노조가 집단탈퇴 총회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규약상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돌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뭔가 찝찝한 감을 지을 수가 없다.

콘티넨탈지회 해고자 2명은 해고무효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승소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창구단일화 관련해서 자본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이 더이상 정치적 판결로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노사정위 상경투쟁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4시
~ 4월 1일(수) 12시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지회 설립 10주년

엔텍지회 설립기념 행사

일시 : 2015년 4월 3일(금) 16시30분
장소 : 엔텍지회